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1, 285-304

우울증 소인으로서의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에 따른 대인관계 및 성취사건 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김 지 화†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신 현 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지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일치성 가설을 정보처리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성격유형검사(PSI-II)를 실시하여 사회지향성 집단과 자율지향성 집단을 구분하였고, 참가자들은 부정적인 과거 경험을 쓰는 점화과제를 수행한 직후 대인관계 및 성취사건 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탐침과제를 수행하였다. 사회지향성 집단은 대인관련 단어자극에, 자율지향성 집단은 성취관련 단어자극에 더 주의편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탐침과제의 탐침과 목표단어 자극의 위치가 동일한 일치조건에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두 집단 모두 500ms 조건보다 1000ms 조건에서 주의편향을 보였는데 사회지향성 집단은 성취사건 관련 단어와 대인관계 긍정단어에 대해 정적편향을, 자율지향성 집단은 성취사건 긍정단어에 대한 정적편향을 대인관계 긍정단어에 대해 부적편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지닌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집단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 다른 패턴의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탐침과제, 성격 일치성 가설, 주의편향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지화 /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Fax : 02-594-3870 / E-mail : psycat0727@gmail.com

www.kci.go.kr

우울증 발생에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져왔는데, 최근에 성격 취약성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울에 취약한 요인에 관한 대표적 모형으로써 Beck (1983)이 제안한 소인-스트레스 모형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인 혹은 소질이 우울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모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인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할 때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다(Abramson, Meltasky, & Alloy, 1989; Beck, 1983; Blatt & Zuroff, 1992; Hammen, Ellicott, & Gitlin, 1989; Robins & Luten, 1991; 김차희,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이론가들이 성격특성이 우울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eck(1983)은 인지적인 입장에서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유형인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유형을 제안하였다. 사회지향성은 대인관계에 중점을 두고 친밀함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평가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과도한 관심을 두고, 타인에게 수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회적 목표, 인정, 지지, 친밀감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며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개인들이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대상을 상실하는 경우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Robins & block, 1988). 반면, 자율지향성은 목표성취를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평가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자율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독립성과 자유, 성취하려는 목표에 집착하며 성취와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지닌다. 또한 독립성, 목표성취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요소라 믿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성취에 대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고 대인관계에 얽매이는 것을 꺼려한다. 이들이 목표성취에 실패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다 (Hokanson, 1992).

Beck(1987)은 성격-일치성 가설(personality congruency hypothesis)을 제안하면서,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개인의 성격과 일치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가설은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나 평가가 우울증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에서(거부, 관계종결), 자율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인 성취관련 사건에서(실패, 목표좌절)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Beck(1987)이 제안한 성격-일치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선행되어왔다. Robins와 Block(1988)은 개인의 성격과 일치하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경험할 때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검증하였다. 사회지향성은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경험한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지향성과 성취관련 부정적 사건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자율지향성은 우울과 관련되지 않았으며, 우울증 발생에 취약한 어떠한 종류의 생활사건도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격-일치성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Robins와 Block(1988)의 연구에서 자율지향성에 대한 성격-일치성 가설이 지지되지 않

www.kci.go.kr

은 이유로 자율지향성 척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Robins와 Luten(1991)은 단극성 우울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임상적 증상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두 집단에서 각 성격유형에 일치하는 임상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즉, 사회지향성은 박탈감 및 반응성 우울의 증상을, 자율지향성은 패배감 및 내인성 우울의 증상을 보였다. 이로써 우울에 취약한 하위유형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우울 증상이 선택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Moore와 Blackburn(1993)은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유형을 지닌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정보처리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일치 기억과 성격-불일치 기억에 대한 인출 반응시간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서전적 기억과제를 사용하였는데 우울한 사회지향적 개인은 자율지향성과 관련된 자극에 비해 부정적인 대인관계 관련 기억을 더 빨리 회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 기억 효과는 자율지향성 개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Robins(1990)는 성격-일치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개인에게 사회적 거부, 성취실패에 대한 스크립트를 오디오로 들려주어 기분을 유도하고자 했다. 그 결과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두 가지 스크립트에 대해 우울기분의 증가를 보고하였으나, 자율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우울기분의 증가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Zuroff와 Mongrain(1987)은 Robins(1990)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격-일치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높은 의존성 혹은 자기-비판적 취약성을 지닌 사람을 분류하여 개인의 취약성과 일치하는 대인관계 거부, 성취사건 실패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시나리오에 대해 더 우울해졌으나, 자기-비판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모두 우울함을 보였다.

Dozois와 Backs-Dermott(2000)는 사회지향성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처리 편향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격-일치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사회적 거부, 성취사건 실패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자기기술과제와 Stroop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거부 점화조건에서 사회지향성이 높은 집단은 사회지향성이 낮은 집단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형용사에 대하여 자기 기술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자기를 덜 긍정적으로 평정하였다. 그러나 Stroop 과제의 결과 집단×단어자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분적으로 정보처리 일치성 가설이 지지되었다.

장미선(2003)은 Dozois와 Backs-Dermott(2000)의 연구를 확장하여 자율지향성 하위차원을 추가하였다. 자기-인지도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점화과제를 실시한 후, 자기기술평정과제와 정서 Stroop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달리 사회지향성 집단은 대인관계상에서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율지향성 집단은 성취측면에서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회지향성 집단과 자율지향성 집단 모두 정서 Stroop 과제에서도 점화조건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단어에 대해 반응시간이 길어져, 긍정특성을 지닌 단어에 주의를 편향하여 정보를 처리함을 나타내었다.

여러 연구들에서 주의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www.kci.go.kr

단일-자극과제와 다중-자극과제를 사용한다. 단일-자극과제로 대표적인 것이 Stroop 과제이다. 그런데 Stroop 과제와 같은 단일-자극과제는 자극과 반응요소를 동시해 제시함으로써 집단 간의 차이가 정보처리의 초기과정(input)에 의한 것인지 후기과정(output)에 의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Stroop 과제에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간섭은 주의보다 회피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Gotlib & McCann, 1984). 또한 Stroop 과제는 단일대상이 가진 상이한 속성에 선택적으로 주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개별대상의 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Algom, et al., 2004; Macleod et al., 1986).

주의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Stroop 과제와 더불어 탐침과제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과제가 갖는 이점이 있다. 탐침과제는 위협자극-중성자극이 한 화면에 동시에 제시되고 위협자극-중성자극이 사라진 후 작은 점이 두 위치 중 한 곳에 나타난다. 참가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점의 위치에 반응하도록 한다. 이 과제는 참가자들의 주의를 배분하는 자극을 제시하고 이에 반응하는 속도에 기초하여 주의를 평가한다. 즉, 주의를 두었던 자극에 점이 제시되면 주의를 두고 있지 않았던 자극에 점이 제시될 때보다 빠르게 반응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특정자극에 주의를 편향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참가자가 중성자극보다 위협 관련 자극에 대해 빠르게 반응할 때 위협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중성 자극에 반응을 하도록 요구하므로 반응지연이 반응편향이나 일반적인 각성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또한 탐침과제는 주요자극과 점이 제시되는 간격을 조절하여 주의할당의 시간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Bar-Haim, et al., 2007).

탐침과제를 통해 주의편향뿐만 아니라 위협자극을 제시하는 노출 기간을 조작하여 주의편향의 시간과정(time-course)을 알아볼 수 있다. 시간과정을 통한 많은 연구들은 100ms, 500ms, 1250ms(또는 1500ms)를 사용한다(신미연, 2006). 그러나 Kowler(1995)의 연구에 따르면 200-300ms가 안구운동을 하는 시기이므로 100ms는 단어자극을 읽거나 다른 자극으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500ms는 응시하고 있던 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점으로써, 정서자극에 대한 최초의 지향탐지를 반영한다. 한편, Mogg와 Bradley(2005)는 우울은 부정적 자극에 대한 빠른 주의와 관련되지 않으나, 부정적 자극이 오래 제시될 때 주의를 이탈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또한 Bradley, Mogg와 Lee(1997)도 1,000ms 이상의 자극 노출 실험에서 우울한 개인이 주의편향을 보인다고 밝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그러나 보다 짧은 시간동안 자극을 노출한 Mathews, Ridgeway와 Williamson(1996)의 연구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의과제를 사용한 연구들은 우울한 개인들이 주의를 두는 자극을 오래 동안 제시했을 때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우울한 개인의 주의편향은 위협자극의 노출시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성격특성과 일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지향성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은 검증되었으나, 자율지향성과 성취사건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덜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www.kci.go.kr

(김은정, 권정혜, 1998). 또한 성격-일치성 가설이 검증된 사회지향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로로 인해 자기-인지도식이 활성화되며 주의편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우울에 취약한 하위성격 유형으로 분류된 두 성격유형에 대한 자기-인지도식의 활성화 및 정보처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장미선, 2003).

Dozois와 Backs-Dermott(2000)는 사회지향성만을 대상으로 자기-인지도식의 정보처리를 검증하였으나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사회지향성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들의 연구를 확장한 장미선(2003)의 연구에서 성격-사건 일치성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점화과제가 충분히 자기-인지도식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자기-인지도식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고려하여 탐침과제와 자서전적 과제를 도입하여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개인의 정보처리 편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울한 개인의 주의편향은 보다 긴 노출시간에서 나타나는데, 우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되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집단에서도 자극노출시간에 따라 주의편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자극에 대한 최초의 탐지가 발생하는 시점인 500ms와 기존 연구에서 우울한 개인의 주의편향이 나타났던 시간인 1000ms, 두 조건을 설정하여 자극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향성 집단은 자율지향성 집단보다 대인관계 관련 단어자극에 더 많은 주의편향(정적편향)을 보일 것이다.

둘째, 자율지향성 집단은 사회지향성 집단보다 성취사건 관련 단어자극에 더 많은 주의편향(정적편향)을 보일 것이다.

셋째,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 집단은 탐침과제에서 500ms 보다 1000ms 자극제시 조건에서 더 많은 주의편향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G 광역시의 한 대학의 학부생 420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PSI-II)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울정도가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BDI를 실시하여 우울정도를 측정하였다. PSI-Ⅱ 점수에 따라 사회지향성 상위 30%이면서 동시에 자율지향성 하위 30%를 사회지향성 집단으로, 자율지향성 상위 30%이면서 동시에 사회지향성 하위 30%를 자율지향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도구

Beck의 우울척도(BDI)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로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α=.979로 나타났다.

www.kci.go.kr

성격유형검사(PSI-II)

우울에 대한 개인의 성격적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ersonal Style Inventory(PSI; Robins, Ladd, Welkowitz, Blaney, Diaz, & Kutcher, 1994)를 사용하였다. PSI는 관계지향성, 성취지향성의 두 성격특성을 6점 척도로 측정하는 48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규(2000)가 번안한 PSI 개정판 PSI-Ⅱ를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두 가지 하위성격차원 모두 내적 합치도(사회지향성 α=.83, 자율지향성 α=.82)와 검사-재검사 신뢰도(사회지향성 r=.77, 자율지향성 r=.8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존성',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자율지향성은 '완벽주의/자기비판', '통제욕구', '방어적인 격리'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Robin et al., 1994).

점화과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거부, 성취사건 실패 경험에 대한 스크립트를 들려주어 회상하는 방법 대신 참가자에게 과거의 스트레스 유발 경험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과거의 좌절경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생생하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스트레스와 슬픔이 유발될 수 있도록 슬픔을 유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점화과제 슬픔 및 몰입 정도 측정

점화과제에서 얼마나 몰입할 수 있었는지와 스트레스 경험을 쓰면서 얼마나 슬퍼졌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의 76%가 스트레스 경험을 쓰면서 몰입했으며 70%가 슬퍼졌다고 응답하였다.

탐침과제

실험 자극은 E-Prime(Psychology Software Tools, Pittsburgh, USA)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제작하였다. 자극은 방음시설이 된 실험실에서 15인치 LCD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었다.

각 시행은 응시점(20×20mm)이 모니터 중앙에 500ms 동안 제시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자극단어가 제시되는데, 자극단어는 대인관계 긍정 또는 부정단어, 성취사건 긍정 또는 부정단어, 중성단어로 각 16개씩 총 80개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 긍정단어-중성단어, 대인관계 부정단어-중성단어, 성취사건 긍정단어-중성단어, 성취사건 부정단어-중성단어가 짝지어져 제시되었다. 이때 단어의 크기는 5cm×1cm, 시각도는 4.8°×0.96°, 두 단어자극의 중심에서 측정한 거리는 10cm였으며 자극의 중심에서 고정점까지의 시각도는 4.8°였다. 64쌍의 단어가 자극제시 시간(500ms, 1000ms)에 따라 두 번씩 나타나며 총 128시행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탐침은 대인관계 긍정 또는 부정단어, 성취사건 긍정 또는 부정단어, 중성단어가 나타났던 위치에 동일한 횟수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연습시행으로 500ms 6회, 1000ms 6회로 총 12시행의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시행에서는 500ms 64회, 1000ms 64회로 총 128시행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단어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점이 제시되면 미리 지정된 키보드 버튼(오른쪽: /, 왼쪽: Z)을 눌러 오른쪽, 왼쪽으로 반응하도록 지시하였다. 가능한 한 빨리 점의 위치에 반응하도록 하였고 반응시간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www.kci.go.kr

단어자극

장미선(2003)의 연구에 쓰인 단어 중 대학원생 10명의 평정을 거쳐 응답 일치율이 높은 단어를 선택하였다. 대인관계 관련 긍정 또는 부정단어, 성취사건 관련 긍정 또는 부정단어, 중성단어로 구분하여 각 16개씩 선별하였다. 연습시행용 단어는 중성단어로 총 12개를 선별하였다.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1998)를 참고하여 단어사용의 빈도, 음절수를 동일하게 맞추어 통제하였다.

실험절차

참가자에게 회상과 지각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설명하고 연구 참가 동의서를 받았다. 다음으로 과거 스트레스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몰입하여 기록하도록 지시했고 부정적 정서를 유도하기 위해 음악을 들려주었다. 이때 사용된 음악은 Yuhki Kuramoto의 'gloomy Sunday', Andre Gagnon의 'les jours tranquilles', George Winston의 'thanks giving'이었다. 점화과제를 마치고 슬픔정도와 몰입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다.

점화과제를 마친 직후 컴퓨터를 통해 탐침과제를 실시하였다. 탐침과제 실시 전에 간단한 지각 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과제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모니터와 60cm 떨어져 모니터를 보며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 반응하도록 하였다. 연습시행 12회 후, 본 시행 128회를 실시하였다. 응시점(+)은 500ms 동안 제시되었고 자극은 대인관계 관련 긍정, 부정단어, 성취사건 관련 긍정, 부정단어가 중성단어와 짝지어져서 500ms 또는 1000ms 동안 각 64회씩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단어자극이 사라진 직후 단어가 제시되었던 위치 중 한 곳에 점이 나타났으며 참가자가 반응키를 누를 때까지 최대 5sec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미리 지정된 키보드의 키를 이용하여 점의 위치에 최대한 빠르게 반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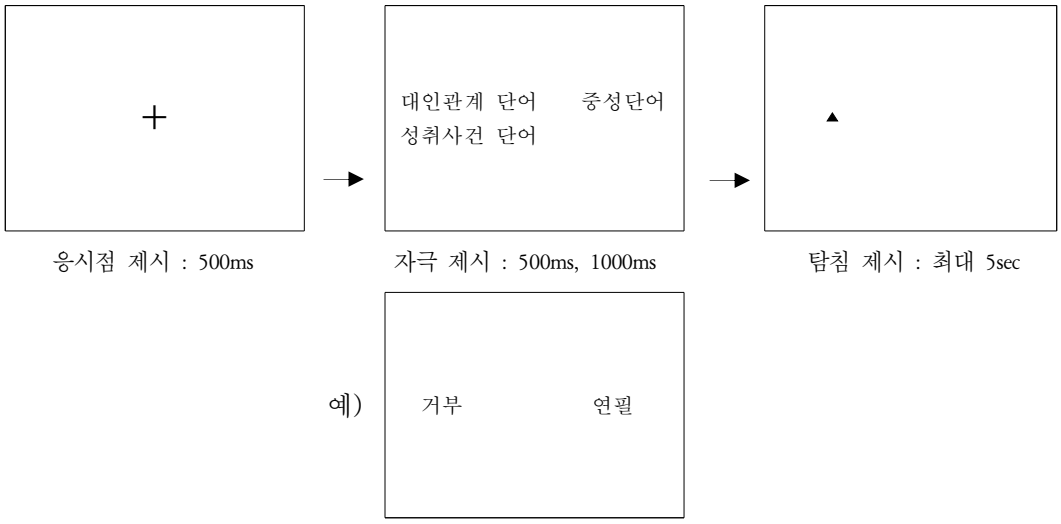

그림 1. 탐침과제 절차

www.kci.go.kr

도록 하였다. 실험 종료 후 참가자에게 실험 목적을 설명해주었다.

자료분석

집단의 성격특성이 단어자극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목표단어와 탐침의 위치가 일치한 조건의 반응시간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시간(2)×단어유형(2)×정서가(2)×집단(2)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극제시 시간, 단어유형 및 정서가에 따른 주의편향 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편향점수를 종속측정치로 하여 시간(2)×단어유형(2)×정서가(2)×집단(2)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편향점수는 탐침과 목표단어의 위치가 불일치한 조건의 반응시간에서 탐침과 목표단어의 위치가 일치한 반응시간의 차로 계산되었다.

결 과

실험 참가자 특성

성격유형검사(PSI-II) 실시를 통해 얻은 실험 참가자의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총 참가자는 37명이었고 개인별 평균 반응시간이 집단평균으로부터 2 표준편차를 넘는 반응시간을 보인 참가자 3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탐침과제의 반응시간이 200ms 이하, 1000ms 이상인 자료는 이상치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각 집단에 따른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BDI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내용	사회지향성집단 (n=17)	자율지향성집단 (n=17)
사회지향성 점수	109.82(15.00)	75.35(9.01)
자율지향성 점수	73.47 (4.52)	101.17(9.54)
BDI	9.70 (6.81)	8.76(7.04)

표 1에 의하면 두 집단의 사회지향성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21)=8.12$, $p<.001$, 자율지향성 점수 역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t(21)=-10.81$, $p<.001$.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된 BDI 점수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관련 정보처리 일치성 가설 검증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집단이 자신의 성격특성과 일치하는 단어자극에 더 빨리 반응하는지 알아보고자 탐침과제에서 목표단어 자극과 탐침이 일치하는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을 분석해보았다. 반응시간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집단(2)×대인, 성취관련 단어(2)×정서가(2)×시간(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32)=28.63$, $p<.001$. 사회지향성 집단과 자율지향성 집단 모두 단어가 500ms 동안 제시될 때 보다 1000ms 동안 제시 될 때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하였다. 단어×정서가×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F(1,32)=3.52$, $p=.07$, 단어×시간×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 $F(1,32)=3.80$, $p=.06$.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집단×단어×정서가×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www.kci.go.kr

선택 주의 반응시간과 주의편향 점수

편향점수는 자극제시 시간과 단어유형에 따라 계산되었다. 점수는 자극단어의(성취사건, 대인관계 관련 단어) 위치와 탐침의 위치가 불일치한 반응시간에서 일치한 반응시간의 차로 계산된다(MacLeod & Mathews, 1986).

편향점수 = [(RpLe-RpRe)+(LpRe-LpLe)]
p=탐침 e=자극단어 R=오른쪽 L=왼쪽

RpLe는 탐침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자극단어가 왼쪽에 나타났을 경우의 반응시간에 해당된다. 불일치한 조건에서 일치하는 조건을 빼기 때문에 편차점수가 '+'일 경우 일치조건의 반응속도가 더 빠르므로 자극단어를 향해 정적인 주의편향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편차점수가 '-'일 경우,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부적인 주의편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신미연, 2006).

각 편향점수에 대한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지향집단에서 1000ms 조건의 성취관련 부정단어가, $t(16)=3.68$, $p<.01$, 자율지향집단에서 500ms 조건의 성취관련 긍정단어가, $t(16)=2.43$, $p<.05$ 유의하였다. 집단(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과 시간(500ms, 1000ms), 단어유형(성취관련 단어, 대인관련 단어) 및 정서가(긍정, 부정)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의 결과에 따르면 집단의 주효과 $F(1,32) = 4.42$, $p<.05$, 단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32)=10.76$, $p<.01$. 사회지향성 집단이 자율지향성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정적인 편향을 보였으며,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대인관련 단어보다 성취관련 단어에 대해 유의하게 정적인 편향을 보였다. 또한 단어×정서가×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32)=7.15$, $p<.05$. 시간×집단의 상호작용은 통계적 유의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 $F(1,32)=3.86$, $p=.058$. 본 연구에서 보고자 알아보고자 했던 단어×정서가×시간×집단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어×정서가×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각 집단별로 단어와 정서가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지향성 집단에서 단어와 정서가에 따른 편향점수 분석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자율지향성 집단의 단어와 정서가에 따른 편향점수 분석 결과를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향성 집단에서 단어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16)=9.62$, $p<.01$. 단어×정서가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 $F(1,16)=3.12$, $p=.09$.

그림 2에 따르면 성취관련 긍정단어, 성취관련 부정단어, 대인관련 긍정단어의 편향점수는 '+'였으며, 대인관련 부정단어의 편향점수는 '-'였다. 성취관련 부정단어와 대인관련 부정단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F(1,16)=10.64$, $p<.01$, 성취관련 긍정단어와 대인관련 부정단어 간 차이는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F(1,32)=3.15$, $p=.09$. 그 외 조건들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자율지향성 집단에서 단어, 정서가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단어×정서가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3에 따르면 성취관련 긍정단어, 성취관련 부정단어의 편향점수는 '+', 대인관련 긍정단어, 대인관련 부정단어의 편향점수는 '-'

www.kci.go.kr

표 2. 집단, 자극제시 시간, 단어유형 및 정서가에 따른 편향점수 분석

변량원	SS	df	MS	*F*
집단(A)	7844.47	1	7844.47	4.42*
오차항	56693.38	32	1771.66	
단어(B)	17494.06	1	17494.06	10.76**
A*B	422.22	1	422.22	<1
오차(단어)	52001.54	32	1625.048	
정서가(C)	6.508	1	585.22	<1
A*C	354.349	1	354.349	<1
오차(정서가)	65541.68	32	2048.17	
시간(D)	15.497	1	15.497	<1
A*D	5750.64	1	5750.64	3.86
오차(시간)	47676.01	32	1489.87	
B*C	1386.06	1	1386.06	1.22
A*B*C	7776.47	1	7776.47	7.15*
오차(단어*정서가)	34799.60	32	1087.48	
B*D	4.118	1	4.118	<1
A*B*D	4993.33	1	4993.33	3.21
오차(단어*시간)	49645.70	32	1551.42	
C*D	1255.53	1	1255.53	<1
A*C*D	2.271	1	2.271	<1
오차(정서가*시간)	73253.00	32	2289.15	
B*C*D	2645.45	1	2645.45	1.48
A*B*C*D	1.424	1	1.424	<1
오차(단어*정서가*시간)	56929.96	32	1779.06	

*p<.05 **p<.01 ***p<.001

였다. 성취관련 긍정단어와 대인관련 긍정단어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1,16)=4.76$, $p<.05$, 기타 조건들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극제시 시간에 따라 단어유형과 정서가 및 집단에 따른 편향점수를 분석하였다. 500ms 조건에서 단어유형과 정서가 및 집단에 따른 편향점수의 분석결과를 표 5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1000ms 조건에서 단어유형과 정서가 및 집단에 따른 편향점수의 분석결과를

www.kci.go.kr

표 3. 사회지향성 집단의 단어유형 및 정서가에 따른 편향점수 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단어(A)	3830.10	1	3830.10	9.62**
오차항	6366.59	16	397.91	
정서가(B)	213.07	1	213.07	<1
오차(정서가)	20480.80	16	1280.05	
A*B	2793.23	1	2793.23	3.12
오차(단어*정서가)	14287.09	16	892.94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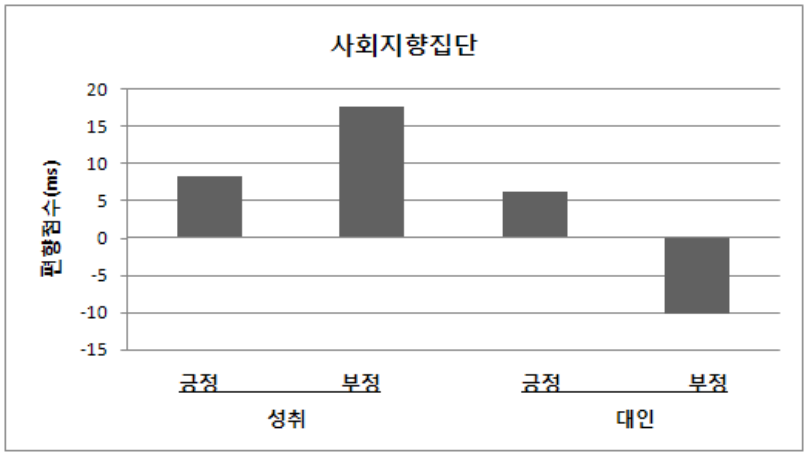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지향성 집단의 단어유형과 정서가에 따른 편향점수

표 4. 자율지향성 집단의 단어유형 및 정서가에 따른 편향점수 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단어(A)	2930.85	1	2930.85	2.50
오차항	18747.55	16	1171.72	
정서가(B)	103.68	1	103.68	<1
오차(정서가)	11274.97	16	11274.97	
A*B	549.74	1	549.74	2.51
오차(단어*정서가)	3494.15	16	3494.15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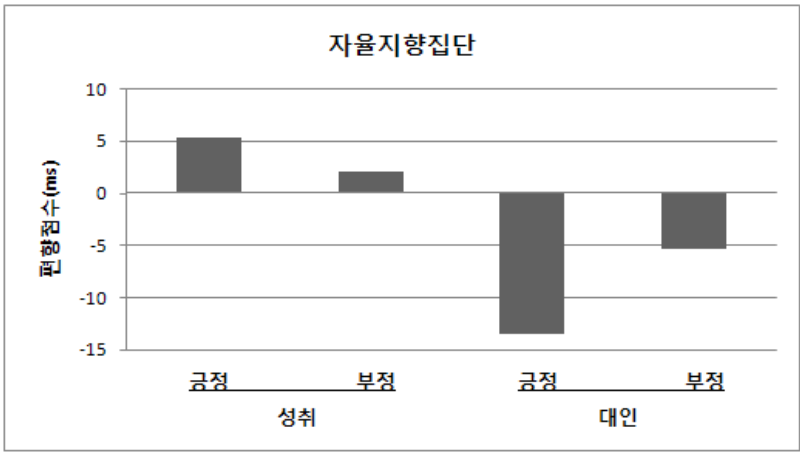

그림 3. 자율지향성 집단의 단어유형과 정서가에 따른 편향점수

표 5. 500ms 조건에서 단어유형, 정서가 및 집단에 따른 편향점수 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집단(A)	81.10	1	81.10	<1
오차항	58069.13	32	1814.66	
단어(B)	8480.68	1	8480.68	4.12
A*B	1255.77	1	1255.77	<1
오차항(단어)	65876.97	32	2058.65	
정서가(C)	540.62	1	540.62	<1
A*C	206.67	1	206.67	<1
오차항(정서가)	62672.88	32	1958.52	
B*C	100.30	1	100.30	<1
A*B*C	3783.70	1	3783.70	3.08
오차(단어*정서가)	39285.82	32	1227.68	

표 6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정서가, 집단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어의 주효과는 주변적 수준의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F(1,32)=4.12$, $p=.05$, 단어×정서가×집단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 $F(1,32)=3.08$, $p=.08$.

자율지향성 집단에서 성취관련 긍정단어와 대인관련 긍정단어의 편향점수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조건들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16)=5.77$, $p<.05$.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단어의 주효과, *F*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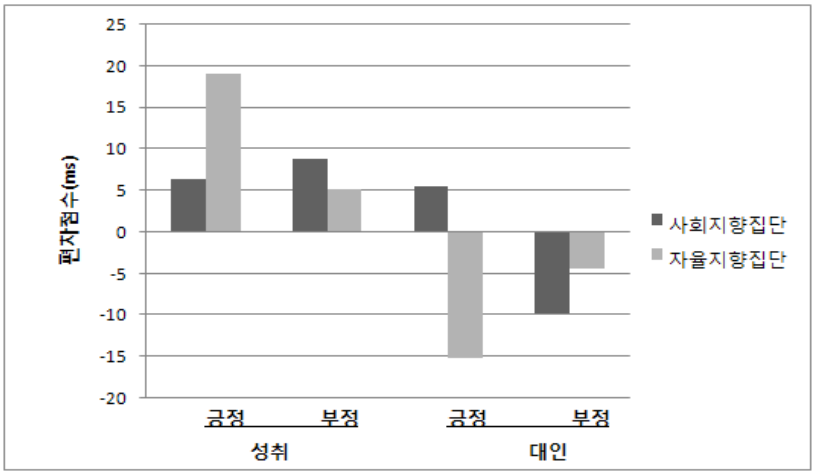

그림 4. 500ms 조건의 단어유형 및 정서가에 따른 편차점수

표 6. 1000ms 조건에서 단어유형, 정서가 및 집단에 따른 편향점수 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집단(A)	13514.01	1	13514.01	9.34**
오차항	46300.27	32	1446.88	
단어(B)	9017.49	1	9017.49	8.06**
A*B	4159.79	1	4159.79	3.72*
오차항(단어)	35770.29	32	1117.82	
정서가(C)	721.481	1	721.481	<1
A*C	149.94	1	149.94	<1
오차항(정서가)	76121.80	32	2378.80	
B*C	3934.20	1	3934.20	2.40
A*B*C	3994.186	1	3994.18	2.43
오차(단어*정서가)	52443.74	32	1638.86	

**p<.01 *p<.1

(1,32)=8.06, p<.01, 집단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F(1,32)=9.34, p<.01, 단어×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 F(1,32)=3.72, p=.06.

편차점수에 있어 단어유형 및 정서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성취관련 부정단어, t(16)=3.66, p<.01, 성취관련 긍정단어, t(16)=2.25, p<.05,에 있어 사회지향집단이 자율지향집단 보다 유의하게 정적인 편향을 보였다. 그리고 대인관련 긍정단어에서 자율지향집단이 사회지향집단 보다 통계적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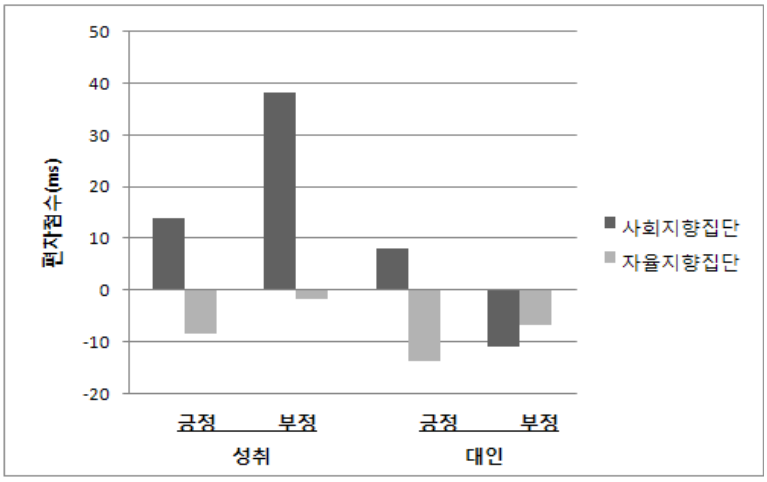

그림 5. 1000ms 조건의 단어유형 및 정서가에 따른 편차점수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인 편향 경향을 보였다, $t(16)=1.73$, $p=.10$.

사회지향성 집단에서 성취관련 부정단어와 대인관련 부정단어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조건들 간 비교는 유의하지 않았다, $F(1,16)=9.88$, $p<.01$.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일치성 가설을 정보처리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우울취약성을 가진 성격 유형인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개인에게 스트레스 사건을 회상하게 한 후,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사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성향과 관련된 자극에 대해 주의를 편향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주의 편향이 자극제시 시간(500ms, 1000ms)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지향성은 자율지향성 집단보다 대인관계 관련자극에 더 많은 주의 편향, 즉 정적편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편향점수를 종속측정치로 하여 분석한 결과, 1000ms 조건에서 자율지향성 집단 보다 대인관련 긍정단어와 성취관련 단어에 대해 정적편향을 보였다. 또한 성취관련 부정단어에 대한 정적편향을 보였고 이러한 편향은 대인관련 부정단어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지향성 집단이 본 연구의 가설과 다르게 성취관련 단어에 대해서도 주의를 편향하였는데, 이는 사회지향성 개인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패나 학업수행과 같은 부정적 성취사건 혹은 성공이나 목표성취와 같은 성취사건을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민규, 2000)와 일치한다. 즉, 순수한 성취사건에 대해서도 대인관계에서의 평가나 인정을 고려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성취사건과 관련한 자극에 대해 주의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취관련 단어에 대해서는 정적편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대인관련 부정단어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www.kci.go.kr

데, 사회지향성 집단은 대인관계에서의 좌절, 거부 등과 같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자극은 위협자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의를 이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지향성 집단은 사회지향성 집단보다 성취사건과 관련된 단어자극에 더 많은 주의편향(정적편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연구 결과 성취관련 긍정단어에 대한 정적편향을 보였고 이러한 편향은 500ms 조건에서 대인관련 긍정단어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1000ms 조건에서 사회지향 집단에 비해 대인관련 긍정단어에 대해 부적편향을 보였다. 자율지향성 집단이 중점을 두는 것은 성취와 목표달성인데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취와 관련된 긍정단어에 주의를 편향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자극에 주의를 편향하여 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은 성취관련 단어에 대해 정적편향을 나타내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인관련 단어에 대해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인관련 긍정단어에 대해 사회지향성 집단은 정적편향을, 자율지향성 집단은 부적편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집단의 성향을 구분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전반적인 목표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주로 가지고 있다(김은정, 권정혜, 1998). 또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주요한 노력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데, 이러한 성향이 정보처리에 반영되어 대인관련 긍정적인 단어에 주의를 두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율지향성 집단은 대인관계에 행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대인관계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인관련 긍정 단어에 대해 주의를 이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에서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 집단은 탐침과제에서 500ms 보다 1000ms 자극제시 조건에서 더 많은 주의편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두 집단 모두 500ms 조건보다 1000ms 조건에서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이는 500ms 조건보다 1000ms 조건에서 더 많은 편향을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우울증을 대상으로 한 주의편향 연구에서 주의편향이 자극 노출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주의편향 연구에서 우울한 개인은 자극이 보다 길게 노출된 과제에서 주의편향을 보이며,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편향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 번 주의를 둔 자극에 대해서는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이탈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Gotlib et al., 2004). 자극에 보다 오래 노출되었을 때 자극을 정교화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편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개인은 우울 취약성을 가진 집단으로 자신의 성격특성과 일치하는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할 때 좌절하고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을 회상하고 기록한 후 탐침과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부정적인 자기 인지도식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로써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자극에 대해 주의편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우울한 사람들이 자극 제시 시간이 긴 조건에서 편향을 보이는 것처럼 우울 취약성을 지닌 사회지향성과 자

www.kci.go.kr

율지향성 집단도 자극노출 시간이 짧은 조건보다 자극노출 시간이 긴 조건에서 편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000ms 조건에서는 500ms 보다 자극 노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탐침의 위치에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준비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탐침과제의 자극제시 시간을 다양하게 조작하여 우울취약성이 있는 개인도 우울한 개인처럼 정보처리의 후기단계에서 편향을 보이는지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장면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 집단 특성상 학업성취, 목표달성과 같은 성취관련 사건에 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율지향성, 사회지향성 모두 성취관련 단어에 주의를 두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가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하나의 자기보고식 척도(PSI-II)만을 사용한 점도 일반화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즉,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집단 모두 우울 수준이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집단이 우울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극제시 시간과 관련하여 우울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 정보처리의 어느 단계에서 더 많은 편향을 보이는지와 그 기제를 밝힐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 제시 시간을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침과제를 사용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불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침연구를 시행하고 시간과정에 대한 연구도 제한되어 있다(최문기, 2005).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울증의 정보처리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취약성을 가진 대상으로 탐침과제를 사용해 정보처리를 알아보았는데,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지닌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 집단은 자극의 종류에 따라 다른 패턴의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부정적인 스트레스 경험을 떠올리는 점화과제를 실시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인지도식이 활성화될 때 이것이 성취사건 관련 및 대인관계 관련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은 감기처럼 쉽게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및 기타영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우울증 치료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여러 심리 사회적 요인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울 취약성을 가진 개인의 정보처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울 취약성과 우울증 발생간의 기제를 밝힘으로써 우울증 발병 전에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우울 취약성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주의편향을 보인다는 것이 규명되었으므로 우울 예방을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 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사회성 및 자율성 성격유형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155

www.kci.go.kr

-169.

김차희 (2006). 성격 양식 및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이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63-175.

신미연 (2006). 사회불안 성향자의 위협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의 시간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빈도 7이상.

이민규 (2000). 우울에 대한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247-257.

이민규 (2000). 한국판 PSI-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2.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장미선 (2003).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성격 관련 정보처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문기 (2005). 주의편향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서장애에 대한 정보처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 217-238.

최성화 (2006). 좌절경험 유형이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 우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Algorm, D., Chajut, E., & Lev, S. (2004). A rational loog at the emotional Stroop phenomenon: A generic slowdown, not a Stroop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3,* 323-338.

Allen, N. B., de L. Horne, D. J., & Trinder, J. (1996). Sociotropy, Autonomy, and Dysphoric Emotional Responses to Specific Classes of Stress: A Psychophysiological 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25-33.

Bar-Haim, Y., Lamy, D., Pergamin, L., Bakermans-Kranenburg, M. J., & IJzendoorn, M, H. (2007). Threat-Related Attentional Bias in Anxious and Nonanxious Individual: A Meta-Analytic Study. *Psychological Bulletin*, *133,* 1-24.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2-27.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 In. P. J. Clayton & J. E. Barrerr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Beck, A. T., Rush, A. J., Epstein, N., Harrison, R. p.,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Blackburn, I. M., & Steer, R. A. (1987). Experimental effects of a cognitive therapy technique in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www.kci.go.kr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353-363.

Blatt, S. J. (1974). Level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sp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107-157.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Bradley, B, P., Mogg, K., & Lee, S. C. (1997). Attentional biases for negative information in induce and naturally occurring dysphor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911-927.

Bradley, B. P., Mogg, K., Miller, N., Bonharm-Carter, C., & Fergusson, E. (1997). Attentional Biases for emotional face. *Cognitive and Emotion, 11(1),* 25-42.

Coyne, J. C., & Gotlib, I. H. (1983). The role of Cognition Depression: A Critical 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94*, 472-505.

Dozois, D. J. A., & Backs-Dermott, B. J. (2000). Sociotropic Personali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Following Imaginal Prim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r Science*, *32*, 117-126.

Fox, E. (1994). Attentional bias in anxiety: A defective inhibition hypothesis. Cognition and Emotion, *8*, 165-195.

Gotlib, I. H., Krasnoperova, E., & Joormann, J. (2004). Attentional Biases for Negative Interpersonal Stimuli in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127-135.

Gotlib, I, H., & McCann, C. D. (1984). Construct accessibility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427-739.

Hammen, C. L., Ellicott, A., Gitlin, M., & Jamison, K. R. (1989). Sociotopy/Autonomy and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54-160

Hokanson, J. E., & Butler, A. C. (1992). Cluster analysis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73-280.

Jutta, J., Lisa, T., & Gotlib, I. H.(2007). Biased Processing of Emotional Information in Girls at Risk f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 135-143.

Kowler, E. (1995). Eye movements. In S. M. Kosslyn & D. N. Osheron(Eds.), *Visual cognition.* Cambridge, Ma: MIT.

Kwon, P., & Whisman, M. A. (1998). Sociotropy and autonomy as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ssues in life event categoriz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 353-362.

Robins, C. J. (1990). Congruence of personality and life events in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47-852.

Robins, C. J., & Block, P. (1988). Personality vulnerability,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a specific interaction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47-852.

Robins, C. J., Ladd, J. S.,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www.kci.go.kr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00,* 74-77.

Robins, C. J., & Luten, A. G. (1991). Sociotropy and Autonomy: Differential Patients of Clinical Presentation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igy, 100,* 74-77.

MacLeod, C., Mathews, A., & Tata, P. (1986). Attentional bias in emotional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5-20.

Mathew, A., & MacLeod, C. (1986). Discrimination of threat cues without awareness in anxiety st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31-138.

Mathew, A., & MacLeod, C.(2005). Cognitive vulnerability to emotional disorder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167-195.

Mathews, A., Ridgeway, V., & Williamson, D. A. (1996). Evidence for attention to threatening stimuli in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695-705.

McCabe, S. B., & Gotlib, I. H. (1995). Selective Attention and Clinical Depression: Performance on a Deployment-of-Attention Task.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241-245.

Mogg, K., & Bradley, B. P. (2005). Attentional bias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versus depressed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29-45.

Mogg, K., & Bradley, B. P., & Williams, R. (1995). Attentional bias in anxiety and depression: the role of awarenes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17-36.

Moore, R. G., & Blackburn, I. M. (1993). Sociotropy, autonomy and personal memories in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460-462.

Williams, J. M, G., Mathews, A., & MacLeod, C. (1996). The emotional Stroop task an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20,* 3-24.

Whitehouse, W. G., Turanski, W. L., & Murray, L. A. (2000). Cognitive processing anomalies in depressive mood disorder. In F. Columbus (Ed.), *Advances in psychology research.*(Vol. 1, PP. 111-125). Hauppage, NY: NOVA Science Publishers.

Zuroff, D. C., & Mongrain, M.(1987).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Vulnerability Factor for Depressive Affective St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4-22.

원고접수일 : 2010. 10. 5.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0. 12. 22.
게재결정일 : 2011. 1. 1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1, Vol. 30, No. 1, 285-304

Attentional Bias Regard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hievement-Relevant Stimuli in College Students with Sociotropy and Autonomy as a Predisposition to Depression

Ji-Hwa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St. Mary's Hospital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gruency hypothesis in sociotropy and autonomy with respect to personality-relevant information processing. A sample of 34 undergraduate students(sociotropy, 17, autonomy, 17) wrote about stressful past experience. A dot probe task was used to investigate attentional bias regarding interpersonal- and achievement-relevant word stimuli. Both sociotropy and autonomy groups showed attentional bias within 1000ms. Further, the sociotropy group exhibited positive attentional bias toward both achievement-relevant words stimuli and positive interpersonal words. The autonomy group showed positive attentional bias toward achievement-relevant stimuli and negative attentional bias toward positive interpersonal words.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individuals who have a vulnerability to depression showed different patterns of attentional bias depending on the kinds of word stimuli. Limitations of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ociotropy, autonomy, dot probe task, personality congruency hypothesis, attentional bias*

www.kci.go.kr